

www.sjsc.or.kr



발달장애 전문기관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동가Vol.3 2014 겨울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희망 세상을 열어줍니다.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2동 28-1)
TEL 02.448.3302 FAX 02.448.6022

Mission & Vision

미션

발달장애 유아, 아동,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에 기여한다

비전

발달장애 유아,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선도하는 대표기관

운영목표

발달장애 유아, 아동,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를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육목표

발달연령별 프로그램

수행수준별 프로그램



발달장애 이용자의 자립능력 강화

동가童歌

아이들웃음소리

2014 겨울 통권 3호

제 3 호 발행 2014년 12월31일
발행처 서울시 장애인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28-1 Tel.02-448-3302
발행인 주석호
편집인 홍완기
자료정리 주민성, 이정순, 소연자, 강은주, 최보윤, 최성민, 임정택, 원미란
편집/인쇄 주식회사 디자인커뮤니케이션 1588-4654 www.toprint.co.kr

Contents

- 4 **시설장 인사말**
아이들을 위한 센터의 변화! / 추석호 센터장
- 5 **운영위원 칼럼**
장애아동의 성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 / 신준우 변호사
- 6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언어이전 단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향상 시키는 방법 / 임연신 서울아산병원 특수교사
- 10 **하반기 사업 현황**
사회적응운동
사회성증진반
재활심리치료
- 15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
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 17 **후원사업**
뮤지컬 '브레멘음악대' / 유열컴퍼니
꿈에그린도서관 / 한화건설
- 20 **직원교육, 운영위원회회의, 자문위원회회의**
- 21 **Essay**
성장 / 사회성증진반교사 원미란
한걸음씩 앞으로 전진~ / 김연진(윤승수어머니)
일년을 마치고 / 용안순(박수빈어머니)
- 24 **자원봉사이야기**
우리 센터 자원봉사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좋은 인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 김혜민
"선생님, 꺼주세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 박현민
- 27 **평가에 대한 이해**
- 29 **이용현황보고**
- 30 **만족도 조사결과보고**
- 32 **세입/세출보고**
- 33 **센터 가을풍경**
- 34 **윤근이의 추억이야기**



www.sjsc.or.kr





“아이들을 위한 센터의 변화!”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는 운영법인의 사회적 공신력, 대외적 신인도와 다년간에 걸친 시설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용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저희 센터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중점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5개의 사업구조를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2개의 중점사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체육관을 확보하여 2개의 체육관 프로그램에서 3개의 체육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점사업인 사회적응 운동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사회성증진반에 중학생반을 신설하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연계성을 통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증설을 위하여 직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센터의 강점으로 부각되어왔던 발달장애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별 전문인력 구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였고, 센터 약점극복을 위하여 타 복지시설과의 사업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제 센터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라는 미션과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선도하는 대표 교육기관”이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객과 센터의 다양한 의사채널 형성하여 프로그램 영역마다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발달장애인의 잠재능력과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발달장애 부모의 서비스요구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 힘들지 않습니다.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는 언제나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장 추 석 호



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력 실태 및 대처 방안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신준우

서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준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장애 아동과 그 부모님을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글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점에 대하여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글을 통하여 제가 일을 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장애 아동에 대한 피해, 그 중에서도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짧게나마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실태

장애 아동은 물론 그 부모님 등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는 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불행하게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동안 벌어졌던 많은 성폭력이 장애 아동이라는 이유로 무시되고 외면되어 묻혀 있다가 최근에 들어 그나마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건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사 같은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언론·통신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성범죄에 관한 기사들을 접할 때에는 항상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를 하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근본적인 예방 대책과 재발방지책이 마련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식 관련 법규 제정만이 이루어져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장애 아동들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실질적인 예방대책은 역시 장애인 본인과 부모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여야 하는 우리 사회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발생 시 대처 방안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모든 대책은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성폭력 범죄 발생 시 대처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발생 시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및 성폭력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고와 상담을 통하여 최근에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법률조력인제도(국가에서 지정한 변호사 등이 일정 교육 수료 후 무료로 법률상담 등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를 통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비밀누설의 금지, 보호처분 등의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수사와 재판과 별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학지원 제도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보게 되면 장애 아동이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학대와 성폭력이 자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장애아동을 성폭행하는 경우 공소시효 미적용,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1/2 가중하는 처벌규정 등이 있습니다.

결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장애인인 아니라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라는 말을 어느 분에게 들었습니다. 자식이 장애인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키우며 보살피는 부모님들의 애환을, 죽어서도 자식 생각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이해심이 넘치는 따뜻한 세상 속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누구나 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더 이상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듣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으며 글을 마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언어이전 단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향상 시키는 방법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정신과 특수교사 임연신

언어이전 단계

Pre-Verbal
Single Verbal

언어이전 단계 아이들은 말을 시키기 이전에 자발적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소통의 의도 및 빈도를 높이기, 언어이해 능력 증가시키기, 주의집중하기, 제스처 사용하기, 타인과 주고받기, 상징행동 발달시키기 등의 다양한 언어행동들을 습득시켜야 합니다. 초기에 발달시켜야 할 의사소통 상호작용의 기능으로는 눈맞춤, 소리내기, 주고받기, 반복을 포함하여 이러한 요소는 이후 언어발달의 초석이 됩니다.

눈맞춤

eye-contact

눈맞춤은 상호작용의 핵심이며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아동이 눈맞춤을 하지 않을 때 아동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성인이 이동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 ★ 부모가 무릎을 굽히고 자세를 낮춥니다.
- ★ 사물을 아동의 눈높이(코 앞)에서 보여줍니다.
- ★ 부모가 눈맞춤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 아이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 ★ 시선 옮기기 → 시선 따르기 → 가리키기 → 몸짓 공동관심 시작
- ★ 시선 바라보기 증진 놀이 : 까꿍놀이, 숨바꼭질, 공주고 받기



공동관심 공유하기

Joint - attention

마음이란 전조로서의 상호주의하기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타인과 함께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동관심 반응하기(responding Joint - attention)은 아동이 성인의 주의집중 방향을 따르는 능력을 말하며, 공동 관심 시작하기(initiating Joint - attention)은 자발적으로 지시 대상에 대한 감정이나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서 눈맞춤, 감정, 몸짓, 발성 또는 상징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공동 관심 공유하기는 상대방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예:사람과 사물에 대한 협응된 관심) 서로 공유되어야 하고 이 때 상호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다리기

아동이 의사소통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게 되면 '기다리기', '언어적 촉진', '눈맞추기'를 사용하여 아동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기다리기'는 계속되는 주고받기 활동이나 일상생활의 흐름을 차단하고, 예상되는 다음 행동의 재개시를 보류함으로써 아동이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방법은 친숙한 놀이를 시작하다가 아동이 즐거움을 표현할 때까지 지속하다가 멈춰서 기다린다. 아동의 요구를 기대하면서 아동을 바라보고 눈맞춤 이루어지면 놀이를 요구하도록 촉구합니다.



- ★ **풍선놀이** 풍선을 분 다음 날려 바람이 빠지면서 방안을 날아다니게 한다. 준비, 하나, 둘, 셋 하여 아동이 놀이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풍선을 날리기 전에 잠깐 멈춰서 눈맞춤과 의사소통의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
- ★ **까꿍놀이** 쿠션이나 옷으로 부모의 얼굴을 가린다. 아동이 기대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고 아동이 놀이를 계속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한다. (예: 터널놀이, 숨바꼭질)
- ★ **기다리기 놀이 시도를 위한 유용한 장난감** pop-up(원인:조종)-결과(작동)방식이 되는 장난감, 비누방울, 풍선, 태엽으로 돌아가는 장난감,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자동차, 투명상자, 두껍있는 통

의사소통 촉진하기

PMT(prelinguistic milieu teaching)

아동이 원하는 물건을 눈에 보이지만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아둡니다. 또는 아동이 기대하는 행동의 순서를 뒤바꿉니다. 의사소통하려는 동기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인형을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 그 상태에서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이 어떤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아동이 인형을 쳐다보거나, 가리키거나, 어떤 소리를 내거나, 성인의 손을 끄는 것과 같은 의사소통 의도를 보이면 인형을 내려준다. 단, 성인은 절대 먼저 어떤 행동을 유도하지 말도록 하고, 아동의 의사소통 행동이 미숙하더라도 반응을 보이도록 합니다.



- ★ 아동이 좋아하는 물건을 보이지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 ★ 태엽 감는 장난감을 움직이게 한다. 장난감이 멈추면 아동에게 건네준다.
- ★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한다.
- ★ 비누방울 통을 열어 비누방울을 분다. 통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건네 준다.
- ★ 풍선을 분다. 바람이 빠지게 한 다음 아동에게 건네준다.
- ★ 아동이 원하는 장난감이나 음식을 투명한 그릇에 담고 뚜껑을 꼭 닫아 아동이 열지 못 하게 한다. 그릇을 아동에게 건네고 기다린다.
- ★ 식사 할 때, 식사도구를 주지 않는다.



주고받기

turn-taking

놀이의 핵심은 상호작용입니다. 이 시기 아동은 성인의 반응과 주고받기를 통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배우고 나아가 새로운 유형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고받기는 의사소통의 기본이며 주고받기를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고 요구하고 자신이 요구를 주고 받는 상호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 ★ 주고받기를 증진을 위한 놀이 : 공주고 받기, 자동차 굴리기, 자석 낚시놀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증진시키기

신호, 상징, 그림, 물건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그림이나 기호가 그려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아동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입니다. 의사소통을 배울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 언어가 아닌 대체방법으로 소통하는 법을 먼저 지도하고 조금 더 쉽게 소통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 방법입니다

- ★ 사진 이용하기 : 플래로이드 사진기 활용

음성, 발성, 행동 모방

음성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 소리모방과 노래따라부르기,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따라하는 행동, 울음, 동작 등을 모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합니다.



- ★ 즐거움의 표현방법, 웃음, 감정적인 소리내기, 감탄사(우와), 단음절 소리모방
- ★ 동물울음소리모방 외 의성어 소리 모방
- ★ 몸 동작 모방: 신체부위 지적, 돌이살짝, 그대로 멈춰라, 의사소통의 기능동작
- ★ 유용한 놀이: 코끼리 피리 불기 / 풍선불기 / 비눗방울 불기 / 지시따르기

모델링

모델링은 행동이 의사소통적 의도를 표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위해 단순한 접촉 몸짓(예: 다른 사람 데리고 끌고 가기, 잡아 당기기, 다른 사람의 손을 이용하여 만지기) 시 성인이 그 사물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외 보여주기, 손 들기, 고개 덕이기, 고개 젓기 등과 같은 관습적 몸짓과 행동묘사하기 등의 상징적인 몸짓의 사용을 모델링 하여 지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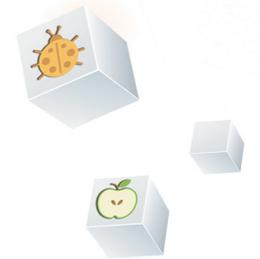


- ★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을 목록화하고 이를 수준에 맞게 지도하기 (예: 오고 갈 때 인사하는 표현 : 머리를 숙이는 동작 / 손바닥 흔드는 동작 등)
- ★ 요구하고자 하는 상황(요구하는 동작과 함께 ~주세요 ~ 더 주세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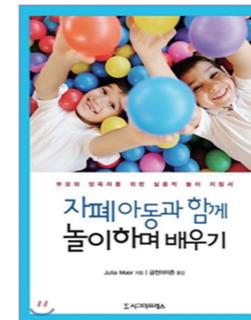


상호작용 증진 놀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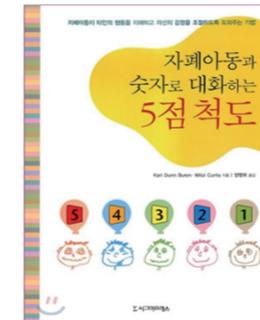
- ★ 놀이의 구조화; 한번에 적은 수의 놀잇감 사용
- ★ 놀이 할 장난감만 꺼내어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환경 구조화
- ★ 작은 장난감은 책상/ 큰 장난감은 바닥에서 놀이
- ★ 처음에는 짧은 시간의 놀이(부모 자녀 상호작용의 질)
- ★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놀잇감부터 시작
- ★ 쉽게 다룰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인형, 소꿉놀이 세트 2세트 (목적: 관찰과 모방)
- ★ 화려하고 예쁘게 꾸며진 것 보다 시각적으로 단순해 보이는 장난감.
- ★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놀잇감 혹은 타인에게 요구하기가 필요한 놀잇감 (pop-up 되는 장난감/ 태엽을 감는 장난감/ 비눗방울/ 풍선/ 두껍이 있는 상자 이용 ...)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유용한 교재



자폐아동과 함께 놀이하며 배우기 시그마프레스



자폐아동과 숫자로 대화하는 5점 척도 시그마프레스



우리아이 즐거워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0~5세 발달단계별 놀이 프로그램 교육과학사



2014년 하반기 사업 현황

사회적응운동

하늘체육관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핫!한 여름
시원하게 물놀이 활동으로
쌩아~!!



내년에도 하늘체육관에 문은 활짝 열립니다!
기대하세요~

다르릉~ 다르릉~네게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다르릉~♪
자전거를 타고서 쌩쌩
달려보자~!!!



7월
저희 한강수영장
왔어요~



사회적응운동4단계
아이들의 풋살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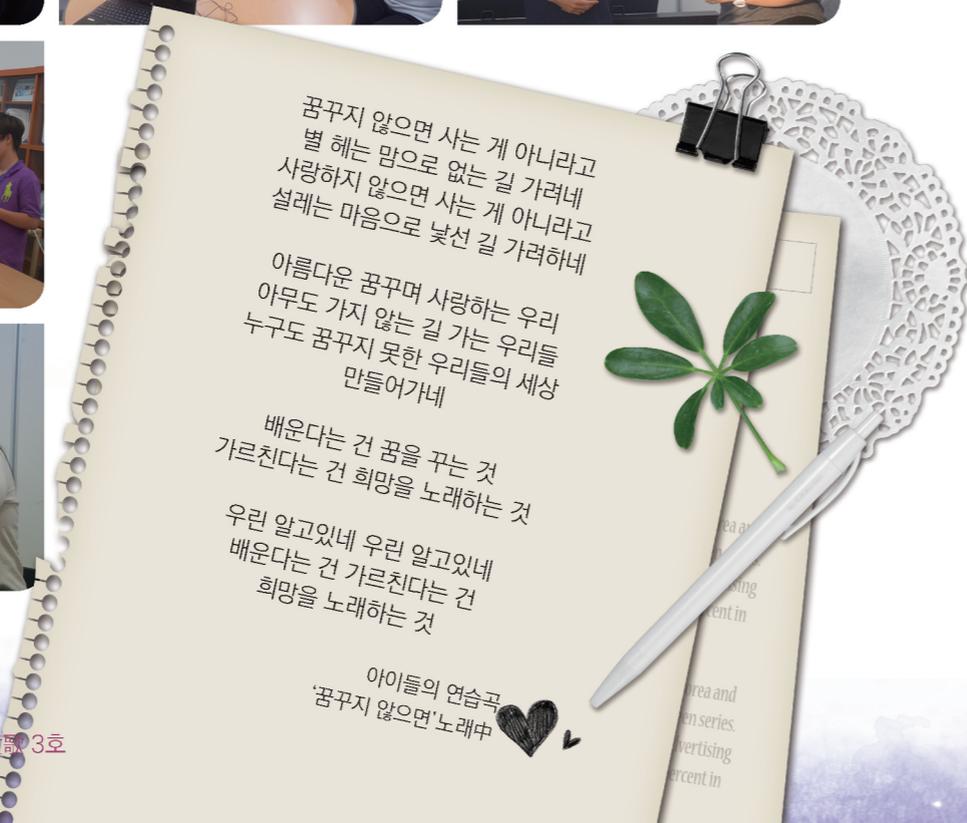
결과는 1승이라는 값진 승과 2패라는 경험이 쌓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



사회성증진반 이야기 1

음악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합창 프로그램

기본 발성을 익히고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12월에는 우리 아이들의 첫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한층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성증진반 이야기 2

문화나눔을 통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조형전

11월 7일(금) 오늘은 아주 굉장한 소식이 있습니다. 메이가 괴물 토토로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토토로와 가오나시를 만났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장면이 재현된 아기자기한 세트장에서 멋진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삼성희망의문화클럽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용을 찾아라'



11월 17일(월) 국립고궁박물관의 초청으로 '용을 찾아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차량지원과 함께 박물관 휴관일인 월요일에 초대받아 아무도 없는 박물관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조선왕실의 대표적인 문양을 용을 찾는 활동을 통한 즐겁고 흥미로운 박물관 체험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사회시설의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재활심리치료

자신의 대한 믿음, 할 수 있다는 용기, 함께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재활심리치료를 소개합니다.

할 수 있다는 용기



신나는 거품물감 놀이! 보들보들미끌미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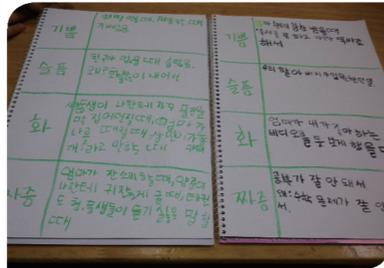
헛물 헛물!! 혼자하려고니 힘들어~ ㅠ.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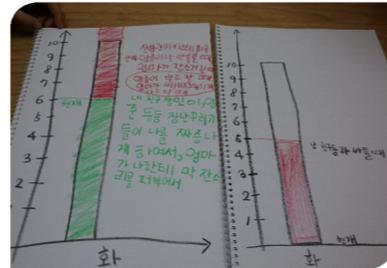
자신에 대한 믿음



도블~~게이임!!! 이기고야 말겠어.



나의 4대 감정이란?



화 그래프를 만들어 볼까?

함께 하는 즐거움



친구들과 함께 만든 작품진! 우리들의 솜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체험여행은 장애아동에게는 오감능력 향상과 사회성향상을 목적으로, 가족에게는 스트레스 해소, 형제애 및 가족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체험여행

- ★ 장 소 이천 부래미마을
- ★ 행 사 일 2014년 9월 20일(토)
- ★ 참가인원 45명
- ★ 체험프로그램 다육식물심기, 포도따기, 포도주만들기, 고구마 캐기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기관협력

발달장애 성인 운동 지원 프로그램

송파구 내 장애인 시설 : 신아재활원, 굿월스토어, 더채움, 사랑나눔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을 연계하여
발달장애 성인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 대상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다양한 교구구비,
쾌적한 시설/환경

후원사업

사랑과 관심으로, 인연과 인연으로 받은 아름 다운 후원~

유열컴퍼니 후원 :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유열컴퍼니 후원

- ★ 추 천 사회적기업 꿈담
- ★ 사업내용 2014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초대
- ★ 장 소 유니벌아트센터
- ★ 관 람 일 2014년 6월 29일 오후4시
- ★ 초대인원 156명



가운데: 유열컴퍼니 유열대표님, 오른쪽: 꿈담, 윤승현대표님
센터 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안녕하세요? 꿈담에 윤승현입니다. 센터에서 아이들과 공연도 보러 가시나요?”
작년 KOTRA와 함께 그림에 소질 있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자는 의미 있는 행사
를 진행해 주셨던 꿈담 대표님이 갑자기 연락하셔서, 아이들과 공연도 보러 가는
지 물어보시니 잠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대표님. 보러가요” 뭘지 모르지만, 특별한 선물을 주실 것 같다는 후원 담당자
의 축으로 대답하였고, 그렇게 꿈담 대표님과 우리 아이들의 인연이 다시 시작되
었습니다.
꿈담 대표님은 행사 때문에 유열컴퍼니의 유열대표님을 만났는데, 사업 얘기를
하시다가 센터와의 인연을 얘기 하였고, 센터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신 유열대표님
이 혹시 아이들이 뮤지컬을 좋아한다고 물어보셔서 다급히 연락하신 거라는 상황
을 얘기해주셨습니다.

사랑은 사람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어 인연으로 연결되듯이 꿈담과 유열컴퍼니 대
표님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연관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인연이 되리라 생
각하며, 브레멘 음악대를 관람하였습니다.

후원사업

한화건설 임직원 분들의 구슬땀으로 만들어진
꿈에 그린 도서관 33호점 개관



- ★ 사업내용 꿈에 그린 도서관 시공지원, 도서지원
- ★ 개관일 2014년 8월 4일

무더운 태양이 짙게 내리쬐던 6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한화 건설 임직원 분들이 한 명, 두 명 마천동 장애아동센터에 모였습니다.

도서관 만들기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 어제 야근을 하고 오신 분, 오후에 다시 회사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분 등, 바쁘신 일정이지만, 도서관 만들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자원 하셨다며, 수줍게 웃으시는 직원 분들이 생각납니다.

6월부터 시작한 도서관 리 모델링 공사는, 청소부터 시공, 페인트칠, 도서라벨 작업까지 한화건설 임직원 분들의 손길과 땀으로 만들어져, 8월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한화건설 임직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사포작업



바닥공사



책장설치



책장페인트칠



도서정리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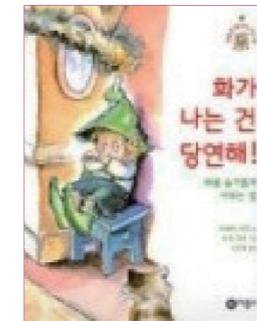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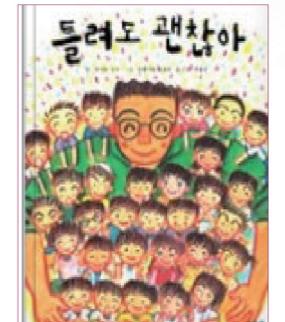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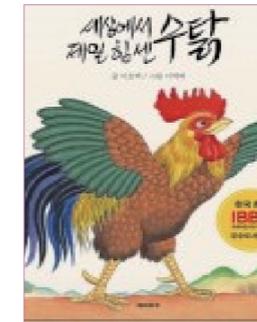
개관식

우리가 주된 '꿈에 그린 도서관' 소식

꿈에 그린 도서관 운영 방법

- ★ 꿈에 그린도서관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앞으로 어머니와 아동들의 독서의 공간, 쉼의 공간, 사랑방과 같은 소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 ★ 꿈에 그린도서관의 도서는 한화건설에서 기증해주신 도서와, 센터 어머니들께서 기증해주신 도서로 구비되어있습니다.
- ★ 꿈에 그린도서관의 책은 대여할 수 없습니다. 센터 이용 시 읽으시고 제자리에 놓아 주셔야 하며, 꼭 다시 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다음 수업시간 전에 방문하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동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 기증하고 싶은 도서가 있다면 4층 행정팀으로 도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도서는 동화책, 만화책, 소설책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서울시 어린이 도서관 추천 도서



이보다 훨씬 많은 책들이 '꿈에 그린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	월	성명	권
1	8월	김현우 가족	72
2	8월	나기태 가족	40
3	8월	오민석 가족	43
4	9월	신연수 가족	175
5	10월	이상민 가족	201
6	11월	권도원 가족	53
합계			584

직원 교육

- ★ 교육명 직원 안전교육 - 심폐소생술
- ★ 교육일시 2014년 8월 11일(월)
- ★ 참여인원 10명
- ★ 장소 제3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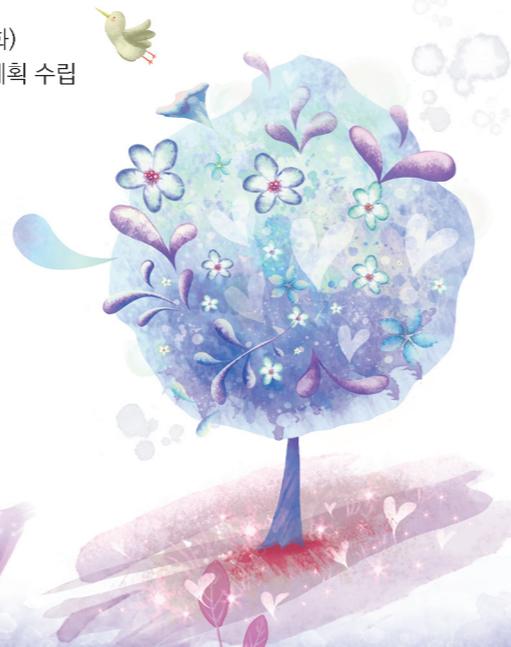
자문위원회의

- ★ 회의일 2014년 10월 6일(월)
- ★ 회의목적 프로그램 자문 및 2015년 프로그램 방향제시
- ★ 참석인원 자문위원위원 4명, 센터직원 4명
- ★ 회의장소 회의실



운영위원회의

- ★ 회의일 2014년 8월 22일(화), 11월 11일(화)
- ★ 회의목적 2014년 사업 결산 및 2015년 사업계획 수립
- ★ 참석인원 운영위원 7명
- ★ 회의장소 회의실



Essay 성장

사회성증진반 교사 원미란



봉사자부터 실습생으로 실습생에서 교사로 생각이나 했을까?

2012년에 시작된 인연이 벌써 2015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나는 걱정 반 기대 반 설렘으로 소연자주임님을 따라 사회성증진반의 교사 생활이 시작됐다. 초등 반, 중등 반 8명씩 이뤄진 사회성증진반의 첫 날의 떨림은 지금도 생생한데 처음 만나는 아이들 또한 얼마나 긴장했을까? 아이들 모두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한명씩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를 알아갔고, 작년에 실습을 했을 때 만났던 아이들과 새로운 아이들 모두 특징과 성향을 파악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책임감을 기르고 아이들과 하나씩 같이 적응해나가면서 나 또한 성장하고 있다. 때로는 아이들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속상해서 운적도 있고,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라는 생각도 수없이 나에게 질문을 했다.

속상했던 것들도 아이들의 해맑은 눈을 보면 오히려 미안해지기도 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선생님 사랑해요를 외칠 때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짓기도 한다. 자신의 간식을 나에게 먼저 권할 때 가슴에서 울컥한 적도 있고, 한참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은 40분 동안 맘을 뽀뽀 흘려서 만든 간식이 5분 만에 없어질 때, 내가 만든 간식이 맛있는 것인지 아이들이 잘 먹는 건지 헛갈리긴 하지만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뿌듯하다. 한번은 아이들과 게임 프로그램으로 수건돌리기 게임을 하는데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런지 아이들과 놀이에 심취한 나머지 엄청 크게 넘어졌는데도 아이들의 웃는 소리에 커다랗게 멍이 들어 아픈 줄도 모르고 깔깔 웃으며 다시 게임을 시작했다. 초반에 요리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일회용품갑조차 끼기 힘들어 하던 아이가 후반에 활동할 때 스스로 장갑을 끼거나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해내었을 때 나는 많은 것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선생님이 기억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꾸짖을 때에도 올바른 행동을 위해서 하는 과정이지만 시무룩한 표정을 볼 때는 나 또한 사람인지만 마음 한쪽이 아프다. 아이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각기 다른 개성과 특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은 각자 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표현방법도 다르지만 아이들은 조금 느릴 뿐이지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최대한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고,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싶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고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수업을 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아닌 가벼운 마음으로 또는 놀러온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고 배웠으면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어떠한 추억이 생길지 기대하고, 즐겁게 놀지 고민하며 생각해본다.

2015년의 나는, 아이들은 얼마나 더 성장할까?

Essay 한걸음씩 앞으로 전진~

윤승수 어머니 김 연 진



2년전 사회성증진반에서 T.O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설레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에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중이라 도중에 하차하는 결정이 쉽지 않았었다.

고민중에 아는 엄마가 이곳은 무조건 가야하는 곳이라고 정보를줘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말그대로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이 교육은 수영을 주목표로 삼고 운동만 하던 아들에게는 무언가 허전한 공백을 채워줄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이곳에서의 프로그램중 요리시간은 먹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아들에게는 아주 딱이었다. 챙겨주어야만 먹었던 녀석 이 이 곳에서 요리를 배우고 난후부터는 샌드위치에 토핑을 선택해서 이것저것 넣어먹기도하고 빵에 잼을 자기 기호에 맞게 발라 먹기도하는 등 무언가를 찾아 열심히 해먹는다.

아주 소소한 일에서부터 자기 의사결정이 점점 확고해지는 것을 보며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진보적인것은 물건사고 파는 놀이를 통해 돈의 개념을 알게 된것이다.

새뱃돈을 받아도 아무렇게나 들고다니다 잃어버리기 쉬웠는데 이제는 딱 접어서 주머니에 챙기기 시작하고 엄마에게 맡기기도 싫어한다.

“왜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 물어보면 ”맛있는거 살거예요“라는 대답을 곧잘 하는것보면 물건 구매해보기 놀이를 통한 효과인것 같다.

5학년때부터 하게된 이 프로그램이 다 채워져 갔을때 중등반이 생기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후...소망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장소나 시간 이것을 기획하기까지 쉽지 않은 선생님들의 노력과 정성이 느껴져서 얼마나 많이 감사한지 모른다.

이제 청소년이 될 아들이 중등반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춘기를 무난히 극복하며, 성숙해지고 질서를 배워나가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기를 바란다.

나도 예전에 나를 인도해 주었던 그 엄마처럼 사회성증진반의 전도사가 되어가고 있는것 같다. 기본에 충실한 사회성증진반 아주 사랑합니다.

애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도 존경과 감사합니다.



Essay 일년을 마치고

박수빈 어머니 용 안 순



일년을 마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마천동에 위치한 서울시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를 소개받았습니다.

몇 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수업을 하고 활동을 하는지는 몰랐다가 우리 발달장애아들에게 자립과 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다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빈이는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서 친구라는 개념이 없었고 반 친구들과하고도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센터를 처음 방문했을때 환경적으로는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센터에 다니면서 즐거워하고 센터에 갈 날을 기다리는걸 보면서 왠지 모르게 흐뭇하고 내 선택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도 처음에는 낯설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스쳐지나는 정도였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서로 장난치면서 노는 모습이 눈에 자주 띄었고 집에 와서도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누구랑 제일 친한지 누가 자기 라이벌인지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센터에 다니지 몇 달 만에 하는 수빈이의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반 친구들에게 먼저 장난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도 생기고 여유로워졌습니다. 학교생활도 평온해지고 얼굴도 훨씬 밝아진 수빈이를 볼때마다 센터에 온 것이 정말 잘 한 선택인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집니다.

더불어 체험활동을 위해서 자주 외부로 나가는데 그때마다 수고와 봉사를 해주시고 수빈이가 이렇게까지 밝고 여유로워진게 다 소연자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덕분인것 같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희망 세상을 열어줍니다.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

우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소개합니다.



매주 수요일
 사회적증진반 아이들의
 간식준비를 책임져 주시는
 일등요리사~
김정자 선생님



센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 주시는
미소천사 이경진봉사자님
 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
 매주 화요일 도서관 지킴이~
임희정 선생님



매주 화요일
 아이들의 이쁜 누나~
김혜민 선생님



아이들 만나면서
 저도 성장한 것 같아
 부듯합니다.
한소영 선생님



미래의 교사를 꿈꾸는...
 겨울방학 때 만나요~
이해은 선생님

아이들이 처음 저의 이름 불러줬을 때,
 부듯함과 감동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규철 선생님



아이들과의 시간은
 이제 출발점에 섰을 뿐입니다.
 너무 지치지도 자만하지도
 않겠습니다^^
 매주 월,수요일
강병철 선생님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방정현민 선생님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봉사해주시는
 주부파워~
 매주 화요일
이재은 선생님

노란 옷의 천사 자원봉사자 이야기

이런 좋은 인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 드립니다.

마천세계로교회 대학생봉사자 김혜민

귀가 따갑게 매미가 울고, 땀별이 쬐던 여름에 처음 센터를 갔는데, 벌써 감장을 끝내고, 겨울 옷을 꺼내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좀 쌀쌀했지만, 봉사를 끝내고 가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처음 체육관 문을 열 때는 얼마나 떨렸는지, 문을 열기 전부터 발이 떼여지지 않았습니다. 혹여 아이들이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아이들을 잘 다루지도 못하는 내가 너무 욕심 내서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너무나 예뻐고,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주 봉사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외우려고 핸드폰에 메모도 해두며, 다음엔 꼭 이름을 불러줘야지 하고 가는 길에도 곱씹어 얼굴을 대입해 이름을 외워봤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다 외우고 보니, 저를 보는 수 많은 눈동자들에 담긴 이야기에 눈이 즐겁고 귀가 즐거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봉사를 갈수록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며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 때문에 공공 양으며 선생님들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날엔 아이들이 정말 야속하기도하고, 한편으론 저 작은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싫기도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속상합니다. 그래도 제가 봉사를 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엔 줄넘기를 못하던 아이가 줄을 넘고, 자전거를 탈 수 없었던 아이가 중심을 잡으려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 싶고, 제 기대치 만큼 따라주지 못하면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내가 아직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추워질 겨울에도 힘 써주실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티가 많은 저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옆에서 저보다 더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게 이런 귀한 인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마천세계로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노란 옷의 천사 자원봉사자 이야기

“선생님, 꺼주세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대학생봉사자 박현민

런닝머신에 올라 간지 1분도 안되어 ○○이가 울부짖는다. 마음이 아프지만 꺼달라는 ○○이의 요청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교실 한쪽 구석에서는 △△이가 줄넘기를 잡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울부짖는 ○○이를 뒤로한 채 △△이에게 줄넘기를 시키지만, 고작 줄넘기를 두 번 넘고 질린 눈치다. 하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마음이 편치 않지만, 아이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규칙을 몸에 익게 해야 한다. 사회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줄넘기를 하면 자전거를 태워주겠다고 하자 △△이는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기 시작한다. 어느덧 15분이 지나고 런닝머신을 마치고 내려온 ○○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나를 보고 씨~ 익 웃는다. 나는 그런 모습이 대견해서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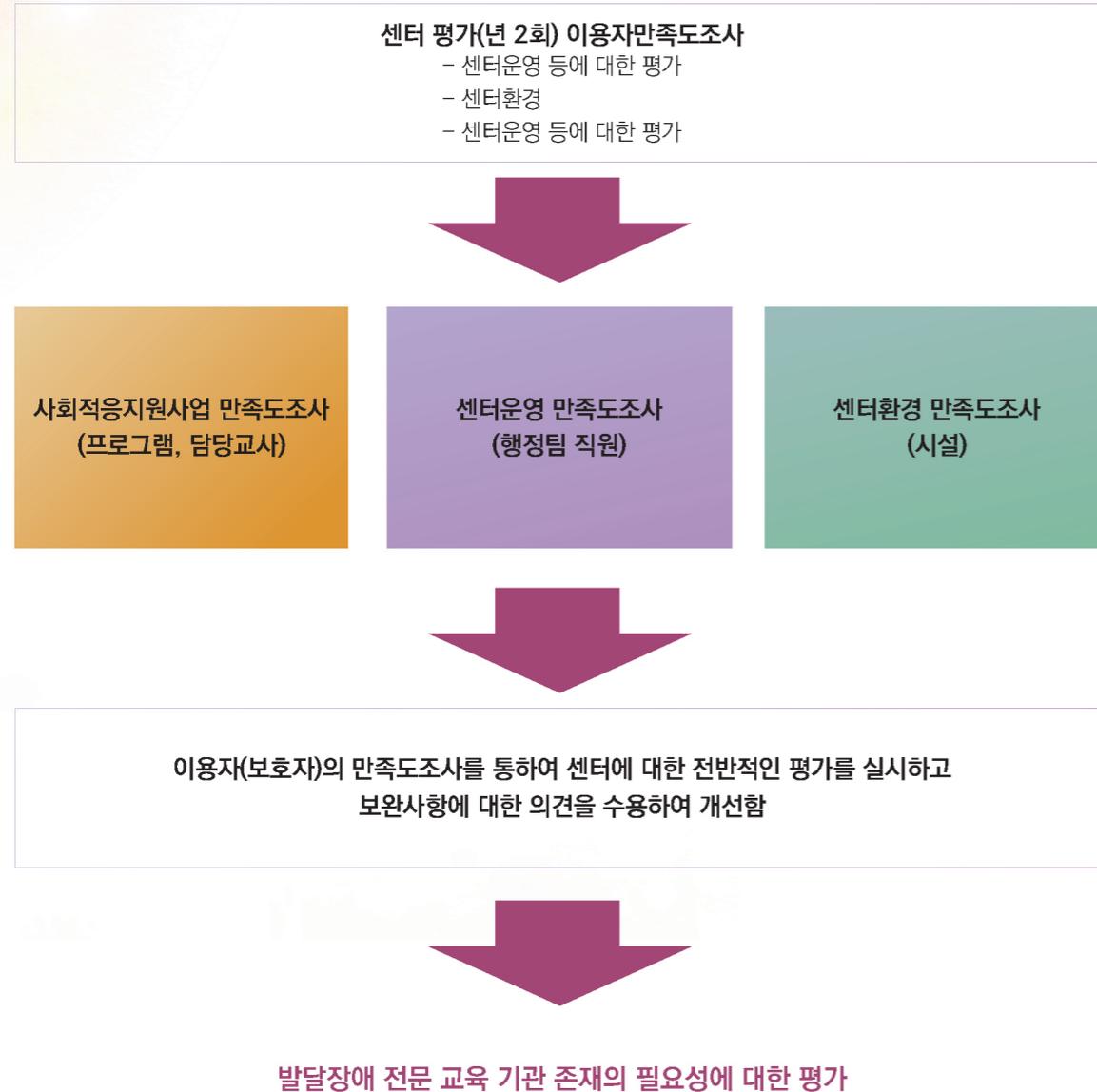
어느덧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 지원센터에서 사회 적응운동 보조교사로서 봉사한지 한 달이 넘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라곤, 학창 시절 같은 학교에 있었던 몇몇 아이들에 대한 기억과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 추상적인 단어들과 몇 편의 영화 밖에 없었다. 고백하자면 어쩌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피하려고 노력하기까지 했다. 이랬던 내가 봉사활동을 하며 발달장애인들과 마주하기로 결심한 것은, 사회적 지원센터가 집에서 멀지 않고, 이곳에서의 봉사활동이 적당히 보람 있을 것 같다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에서였다. 덧붙여서 크게 힘들 것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도... 그러나 봉사활동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규칙과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이들을 보고 좌절했으며, 수업에 참여하기 싫다고 뛰쳐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문득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던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난 왜 이 아이들에게 규칙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채, 아이들에게 사회를 이해하라고 강요하고 있던 것이다. 나는 '정상인'이고 아이들은 '비정상인'이므로 '비정상인'이 '정상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돌아보면 무슨 근거 없는 생각인지. 물론 이 아이들은 우리와 다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이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폭력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능력이 있으므로 더 노력해야 정당하지 않을까?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흘리는 땀만큼이나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최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는 발달장애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겠지만, 법률만으로 이들을 포용하기에 충분치 않다. 발달장애인들과 실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들의 언어와 습관, 행동양식을 이해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운동을 통해 발달장애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 지원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은 내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평가에 대한 이해

- ★ 평가대상 센터 이용자(보호자)
- ★ 평가목적 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평가



평가에 대한 이해

- ★ 센터 경영평가 시 중요한 척도로 반영됨
- ★ 이용자평가(년1회)

가. 세부 프로그램 영역별 평가 :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피검자의 발달 변화를 측정함

세부프로그램	평가도구	평가내용
사회적응운동	MPP(운동수행수준검사)	신체적/인지적 운동수행수준 평가
사회성증진반	CIS-A(지역사회적응검사)	기초생활, 사회자립, 직업생활 영역 평가
재활심리치료	SMS(사회성숙도검사)	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 영역 평가

▶ 직접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이용자의 발달변화를 측정

★ 프로그램을 통한 실제적 효과 입증

나. KNISE-SAB(적응행동검사) : 사회적 행동수준을 일반학생집단과 발달장애학생집단으로 구분하여 현재 수준을 평가함

평가 구성	하위 검사 구성내용
개념적 기술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기, 쓰기, 돈개념, 자기지시
사회적 기술	사회성 일반, 놀이활동, 대인관계, 책임감, 자기존중, 자기보호 규칙과 법
실제적 기술	화장실이용, 먹기, 옷입기, 식사준비, 집안정리, 교통수단 이용 진료받기, 금전관리, 통신수단 이용, 작업기술, 안전 및 건강관리

▶ 보호자의 검사지 작성을 통하여 이용자의 적응행동수준 변화를 측정함

★ 영역별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이용자의 사회적 행동수준 발달에 미치는 실제적 효과 입증

다. 개별적성향분석 : 발달장애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적합한 교수법을 연구함

평가 항목	평가내용
BBRS(행동평정척도)	부작용을 예언하고 선별하기 위한 검사
SDQ-kr(정신건강)	정신건강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
MABC-2C(운동능력검사)	운동손상이 의심 가는 아동을 조기 선별하기 위한 검사
CARS(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	자폐성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
늘이성척도	자발성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
동기사정척도	문제행동의 원인 분석하기 위한 검사

▶ 보호자의 검사지 작성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별적 성향을 분석함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개별적 저해요인 분석

전체 이용자실적보고 2014년 1월~10월

사업분류	장애구분	인원(명)
사회적응지원사업	장애	17,117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장애	1,160
	비장애	222
운영지원사업	비장애	91
장애		18,277
비장애		313
합계		18,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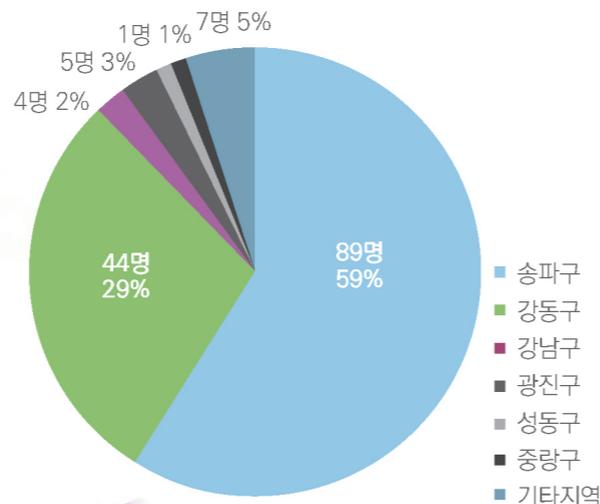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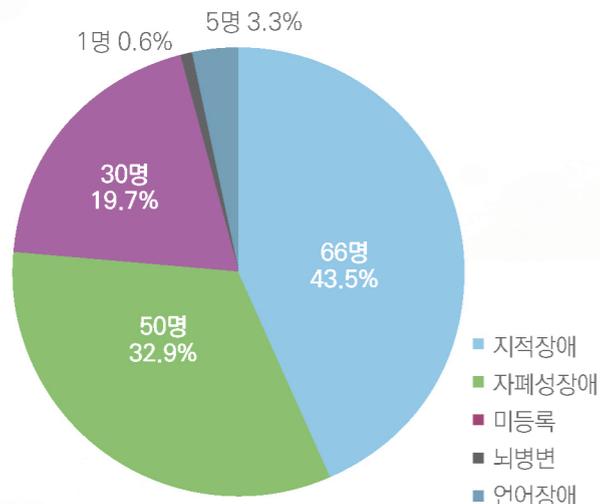
이용현황

장애유형별 이용현황

장애유형	2014.10(기준)
	152명
지적장애	50
자폐성장애	66
미등록	30
뇌병변	1
언어장애	5

거주지별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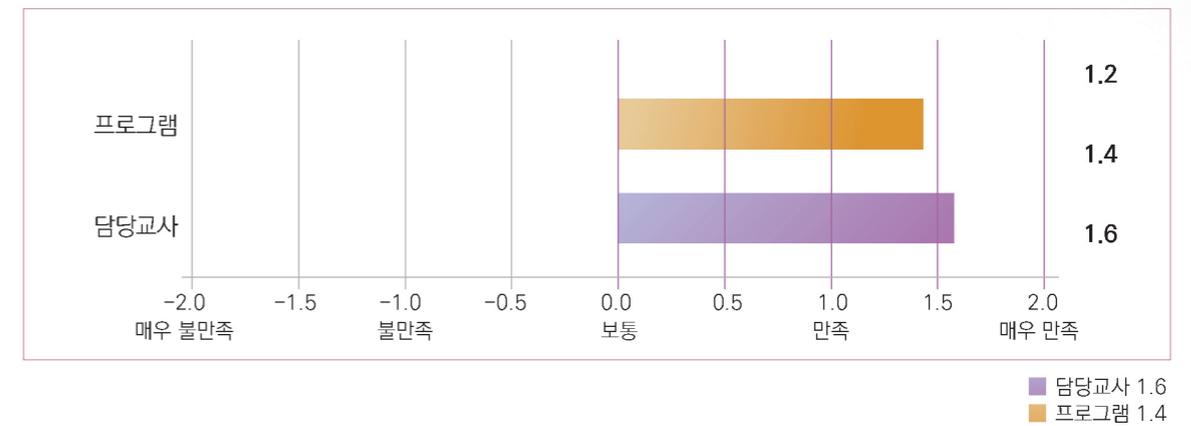
거주지	2014.10(기준)
	152명
강동구	44
송파구	89
광진구	5
강남구	4
성동구	2
중랑구	1
기타지역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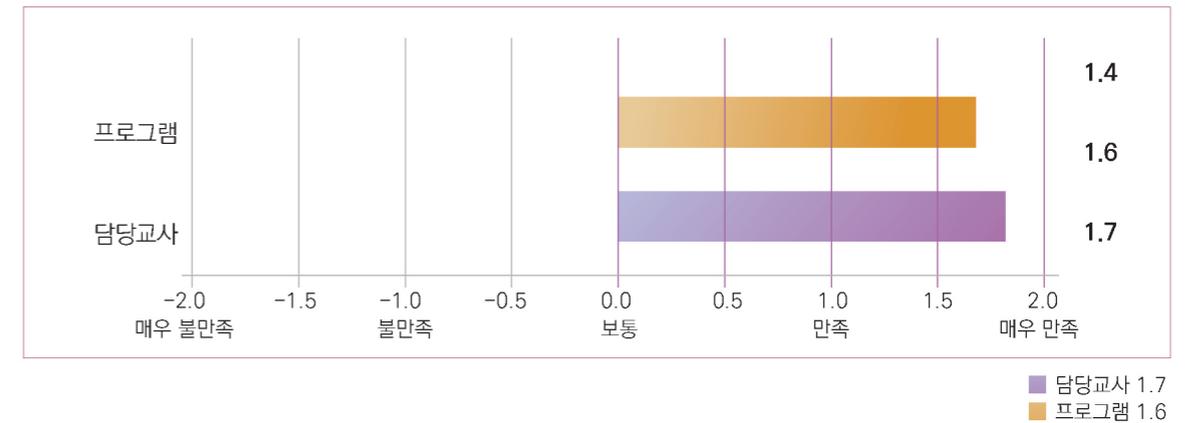
2014년 사회적응사업 만족도 결과

영역	1차	2차	비고
담당교사	1.6	1.6	-
프로그램	1.4	1.7	+0.3

1차 만족도



2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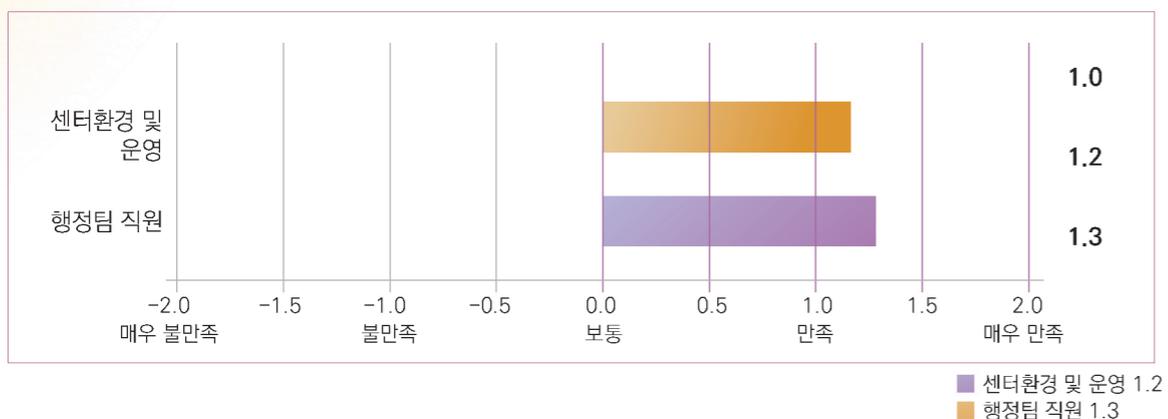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센터에 대하여 '만족한다'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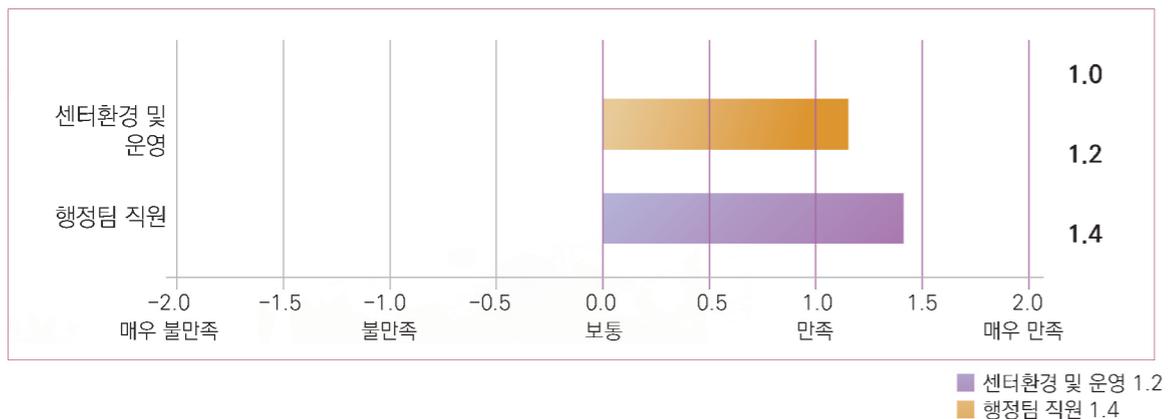
2014년 센터환경 및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영역	1차	2차	비고
센터환경	1.2	1.2	-
행정팀 직원	1.3	1.4	+0.1

1차 만족도 센터 환경 및 운영 만족도(2.0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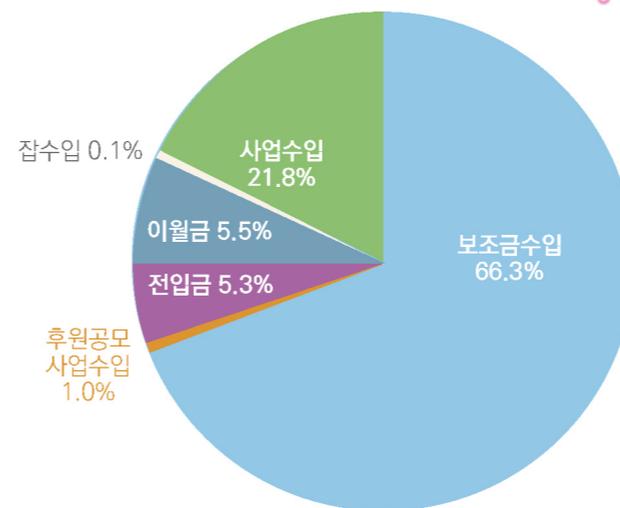


2차 만족도 센터 환경 및 행정팀 직원 만족도(2.0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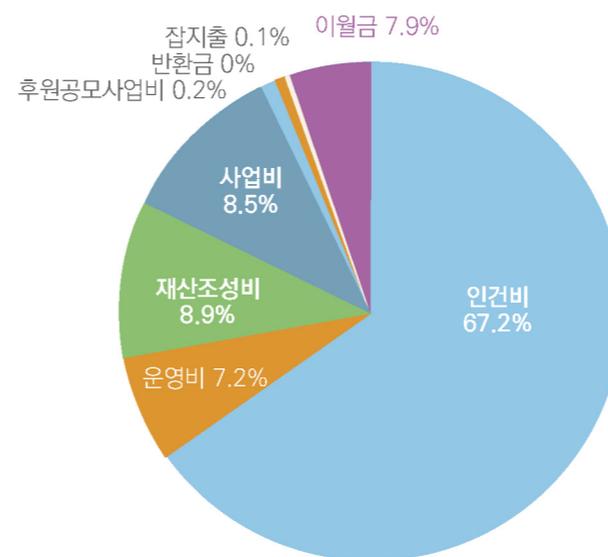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센터에 대하여 '만족한다'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1~3분기(9월) 세입 세출 결산 내역



세입

구분	계
사업수입	89,921
보조금수입	273,600
후원공모사업수입	4,266
전입금	22,000
이월금	22,577
잡수입	374
세입계	412,738



세출

구분	계
인건비	277,403
운영비	29,637
재산조성비	36,743
사업비	35,026
후원공모사업수입	1,038
잡지출	424
반환금	13
이월금	32,454
세출계	412,738

센터의 가을 풍경

센터 어머니들과 센터의 주변 분들께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사랑의 열매로 감기 예방

올해도 감사하게, 센터 모과나무에 모과가 한 아름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센터 직원들과 주변의 도움으로 영차~ 영차~ 모과를 수확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센터 주변 분들과 부모님들께 조금씩 나눠 드렸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서 모과가 금방 바닥을 드러내서 오후 늦게 오시는 어머니들은 구경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내년엔 늦게 오시는 어머니들 부터 구경하실 수 있도록 공평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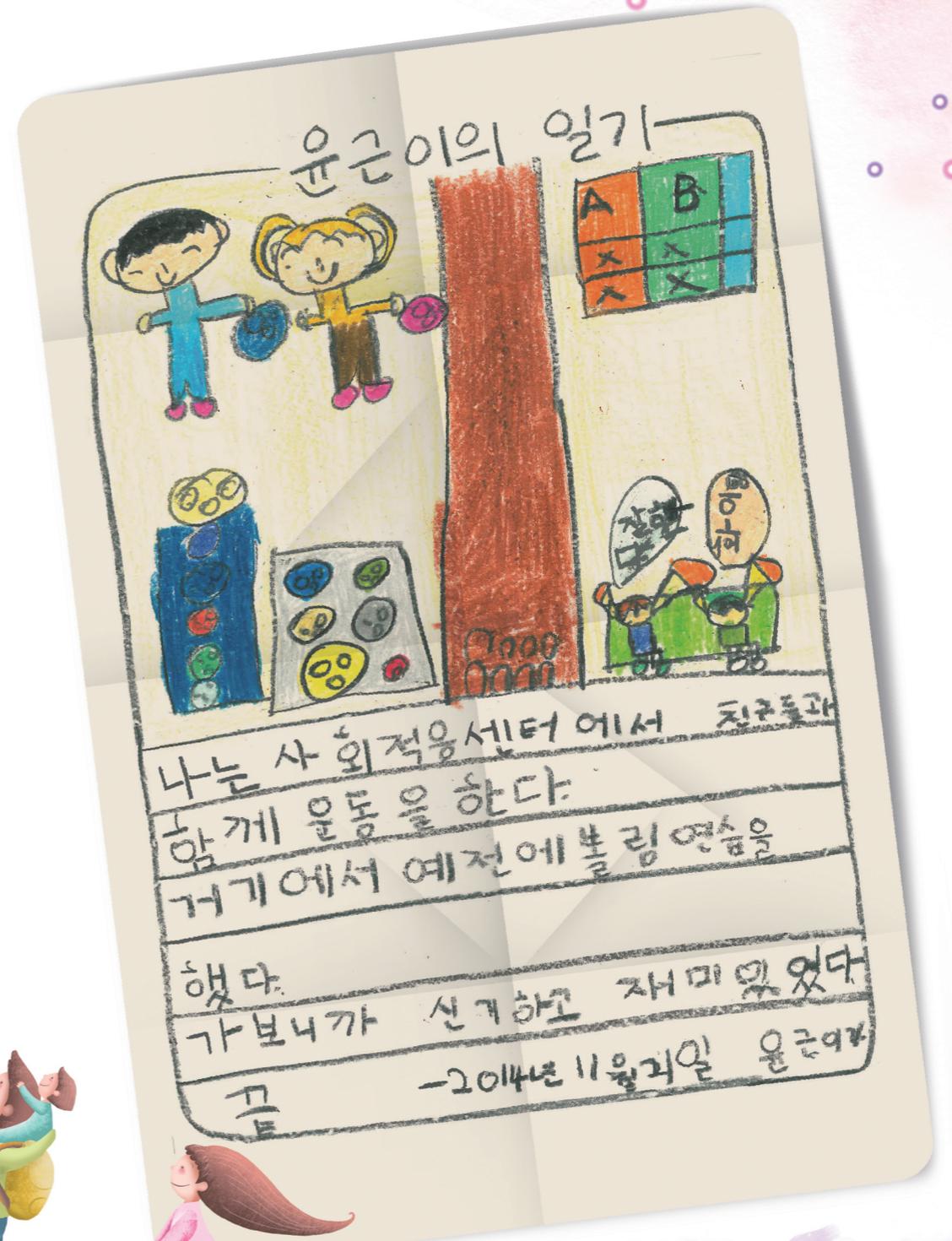


모과 나눠드립니다.
올해도 감사하게 우리 센터 모과나무에 모과가 한 아름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센터 및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수확하여 센터 주변 분들과 부모님들께 조금씩 나눠 드렸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서 모과가 금방 바닥을 드러내서 오후 늦게 오시는 어머니들 부터 구경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내년엔 늦게 오시는 어머니들 부터 구경하실 수 있도록 공평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예방에 탁월한 모과사 만들어 드세요~



윤근이의 추억이야기





발달장애 친구들의 자립을 통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센터가 만들어 갑니다.

오시는 길



5호선 오금역 6번 출구 3314, 3315번 버스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개롱역 3번 출구 3315번 버스 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2호선 잠실역 1번 출구 3315번 버스 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 3317번 버스이용 → 마천2동 윤진빌딩 하차

